

근본적 인식

인간에서 인간으로 (1부)

| 로버트 스톤 | 최유리 '지금여기' 번역위원 옮김 |

식물세포가 어떻게 지성을 갖춘 지각을 하고, 인간 상호간에 원격지각이 가능한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우리의 세포는 생각을 인식하고 있을까? 내 세포는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세포는 내 생각을? 만일 대답이 “그렇다”라면, 이 사실이 당신과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식물의 지성을 탐구한 백스터Backster의 작업을 적절한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이 세기 초기 문학이나 현대의 뇌파 장비의 연구활동에서 이 현상의 속삭임을 발견할 수 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밝혀지면 그것은 당신과 나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이 영향은 긍정적인 것이다. 적절하게 적용된 새로운 지식은 늘 우리 삶의 질을 높여왔다. 세포와 당신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비밀은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수십 년 전 발견된 세포의 지성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나라.

세포들은 수십 년간 “연기를 내왔다”

지난 50여 년간 세포가 인간과 같은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물이 여기저기에서 출판되었다. 1913년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 지에서 배스틴S.L.Bastin은 “식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식물과 동물의 삶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프란시스 다윈 박사Dr. Francis Darwin와 여타 과학자들이 논의해야 할 다음 과제는 식물의 의식과 기억의 증거를 찾는 것이다”라고 서술한다. 그는 이듬해 같은 잡지에 “식물은 알려지지 않은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질문했다. 여기서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식물은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식물들이 전혀 접촉하지 않은 멀리 떨어진 거리의

객체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백스터의 연구결과만큼 정확하게 측정되지는 않았지만 1935년과 1960년 사이 발간된 *Proceed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Growth*와 *Yale Journal of Biology and Medicine* 등에서 헤럴드 버Harold S. Burr는 나무들의 전기적인 속성에 대해 수 십번 언급하고 있다.

그 제목들의 언급만으로도 그의 경향을 알 수 있다.

“살아있는 시스템의 전기적 특성”

“삶의 전기-역동 이론”

“병아리의 생태-전기 포텐셜 변화도”

“미모사의 전기계량 연구”

“전기 자극에 대한 점균류의 반응”

“나무와 땅의 전기성에 태풍이 미치는 영향”

버Burr의 논쟁 중 하나를 검토해보자.

“살아있는 유기체인 나무가 전기장의 속성을 나타내는 전기 조직임이 분명해지고 있음에 따라, 전기적 환경의 변화는 나무의 전기성과 상호 연관성을 보여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태풍이 일 때 측정기에 날카로운 곡선이 기록된다. 이것은 지구와 대기 전기성의 매우 커다란 변화의 증거이다.”

신경해부학자인 버의 주된 관심은 식물과 동물의 전기장을 연구하는데 있었다. 그의 가장 놀라운 발견은 어린 도롱뇽이 성숙한 도롱뇽과 같은 형태의 에너지장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것을 역추적하여 부화하지 않은 알에서도 같은 것을 발견했다. 그는 식물의 이삭 역시 성숙한 식물과 같은 전기장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1969년, 킨츠F.L. Kintz는 ‘현대 관념의 주류Main Currents in Modern Thoughts’에서 백스터의 기초연구의 철학적 적용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이들 중 하나이다.

그것을 시작으로, 과학과 인기 있는 출판물 모두에서 세포 커뮤니케이션의 증거를 탐색하는 기사들이 연이은 행진을 했다. 이번에도, 그에 담긴 생각들을 묘사하기 위해 단순히 제목만 나열해 보자면:

“식물의 단기기억”

“고차 식물의 세포들 사이의 전기적 결합”

“식물 세포의 전기 포텐셜”

“바이러스의 자기적 기억”

“박테리아의 기억과 인식 메커니즘”

백스터는 1966년 2월 2일 밤 이전에 이 징후를 전혀 발견한 적이 없었다. 뿌리에서 잎까지 물이 어떻게 흡수되는지 그 속도에 대한 자연스러운 호기심은 그가 전기저항 측정기 회로를 식물에 장착하게 했다. 그는 베스틴Bastin이나 버Burr나 쿤츠Kuntz에 대해 들어본 일이 없었지만 이후, 그는 더 깊은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공들여서 이 주제를 다룬 대부분의 논문을 연구하였고, 스스로 열정적인 연구를 계속해 나갔다.

근본적 인식 – 인간의 유기성

우리는 백스터가 세포와 동물에 대해 연구한 흔적을 탐색하였으며 이제 인간에 대한 연구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인간의 생각을 인식하는 인간세포의 역할에 주의를 둔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우

리는 초기 연구시기를 역추적인 뒤 현재로 왔다. 이제 우리는 그의 연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것이다. 이제 백스터의 연구에서 나의 연구로 방향을 바꾸어보자. 이 연구는 직접연구와 간접연구, 두 가지로 분류된다. 직접연구는 형이상학, 최면과 자기최면, 사이코 트로닉 psychotronics(의식의 에너지에 대한 연구), 실바 마인드 컨트롤과 명상을 통한 뇌의 오른쪽 반구 활성화에 대한 수년간의 작업이 포함된다. 간접적 연구는 수 십년간 홀리스틱 건강, 신지학, 직관적 기능,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아래에 나의 작업을 설명하는 것은 그의 직접적, 간접적인 연구 활동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첫 번째로 직접연구 활동이다. 실바 마인드 컨트롤 졸업생들이 호놀룰루의 거실에 편안히 앉아 있다. 지금은 저녁이다. 그룹이 눈을 감고 단체로 깊은 숨을 쉬고 있으며, 들리는 소리라고는 밖의 야자수를 흔드는 무역풍 소리뿐이다. 나는 그들의 오른쪽 뇌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뇌파 리듬을 느려지게 하기 위한 카운트다운을 이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로슬린 브라운Roslyn Brown을 떠올리세요. 그녀는 34세이며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질적인 기침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비흡연자입니다. 그녀의 문제를 보고 수정해주시시오.” 그룹이 그들의 상상 속에서 문제를 찾는 동안, 나도 역시 함께 한다. 이 연구는 신체를 스캔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내부나 외부적 시각들 다에서 행해질 수 있다- 그리고 비정상 상태를 보도록 요청한다. 아마도 사람들의 주의를 검은 점들이 보이는 폐로 이끌어질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검은 점들은 지워지거나 덧칠하는 등 비정상에서 해방되어 폐가 완벽하게 되도록 상상하게 한다.

역동적 명상 세션이 끝나고 졸업생들은 노트를 비교한다.

“저는 폐 속의 액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흡입관으로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호흡관에 염증이 있어서 연고를 발랐습니다.”

“저는 폐에 이물질이 있다는 인상을 받아 빨아내었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에 절반가량이 동의할 수 있고, 그외 다른 가능성들도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참여자들의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로슬린 브라운의 건강한 호흡기이다. 일주일 뒤, 말레이시아의 로슬린 브라운으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 “제 기침이 없어졌어요.” 우연일까? 설명되지 않는 사건일까? 과거에 복용한 약에 대한 반응일까? 논리적인 왼쪽 두뇌가 그런 연관성에 대해 질문한다. 원격지에서 행위가 몇 번이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이제 세계에는 8백만이 넘는 실바 마인드 컨트롤 졸업생들이 있으며 의료과학은 잠정적으로 이 방안의 일부를 적용하여 ‘정신신경면역학’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은 환자가 자신의 혈관 세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세포들에도 ‘이야기’할 수 있다. 거기에 인간의 연결성이 있다. 어디에? 모든 곳에…

인간 연결성은 어디에 있는가?

간접적인 연구에서 나는 주기적으로 <운명Fate>이나 <새로운 현실New Realities>과 같은 잘 알려진 잡지로부터 <뇌/마음 소식지 Brain/Mind Bulletin>와 <과학Science> 같은 보다 전문적인 정기간행물을 재검토하였다. 연구결과에 호기심을 보이면, 빈번히 부가적인 정보가 뒤따랐다. 가능할 때마다 백스터는 직접 연구자들과 그들의 작업의 잠재성과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만났다. 이제는 백스터 효과

Backster Effect와 친숙해진 것과 같이, 백스터와 다른 전문적인 조사 역시 비슷하게 놀라운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나의 직접적, 간접적인 연구가 뇌라고 불리는 3백억 대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듯 인공두뇌는 입력 데이터를 넘어서 ‘본다’는 현상을 일으킨다.

지금껏 설명한대로 우리는 우리 생각을 알고 그 생각에 반응하는 인간 세포의 비밀스러운 능력을 사용하고 이해할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다. 정신신경면역학이 전체적인 심신 연결의 일부일 뿐이라고만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 그것은 너무 쉬워서 유치원에 가지 않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것은 수세기에 걸친 물질세계의 비물질적 기초에 대한 모든 형이상학적, 철학적, 신학적 그리고 신지학적 학식의 유용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비-물질”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다. 과학은 결과effect 영역에만 파고들기 때문에, 인과causal 영역에 대한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나 “영적인”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야만 한다. 나는 두 가지 단어를 번갈아 가며 사용할 것이다. 어떤 단어가 쓰이든지 간에 이것은 아무것도 없음nothingness이 아닌 무언가 있음somethingness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무언가 있음’은 물질적 우주의 원초적 에너지가 원자로 결정화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원자들이 분자와 세포로 결합될 때, 이 ‘무언가 있음’은 멀리 있는 다른 인간과 접촉하는 인간의 능력을 갖게 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다. 결국 인간의 연결성은 이 ‘무언가 있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주 조금 밖에 알지 못하고 있던 여러분 자신의 일부를 만날 준비를 하자.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신체는 극히 작은 일부로 생각하라. 그것이 결과로서의 자신이라면 이제 원인으로서의 당신을 찾아보자.

백스터 효과와 긍정적 신념의 이익 사이의 가능한 관계

현재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대부분 여전히 뉴턴 물리학에 바탕해 있다. 이 패러다임이 아인슈타인에 의해 크게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은 아인슈타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인간의 몸을 다루는 의료 전문인의 이해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여전히 인간은 벽돌을 쌓아놓은 입자 구조라는 뉴턴 학설이 성행 중이다. 의사들은 아인슈타인의 보다 상호 침투적이고 상호 작용적인 에너지장으로서의 인간 개념을 받아들이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사들은 인간의 신체를 존재의 한 차원에서만 보고 있다. 에너지장이든 아인슈타인의 관점이든, 외과 절개로 조사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경직되고 한물간 모형을 깨트릴 수 있는 개혁자는 없는 것일까? 그리 많지 않다. 그중 가장 성공적이었던 칼 사이몬튼 박사 Carl Simonton, M.D는 그의 일자리를 잃었다. 다른 이들은 사이몬튼보다 훨씬 적은 곤란을 겪었다.

“나는 인간의 건강이 에너지장에 의존한다는 통찰을 포기하고 그저 뼈와 살로 이루어진 신체라는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 왜냐하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버니 시겔 Bernie Siegel, M.D은 물리학자들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전문적 격려를 제공하였는지 모른다. 예일 대학의 멤버이며 코네티컷 뉴 헤븐 Connecticut, New Haven의 현직 외과의사인 시겔 박사 Dr. Siegel는 1988년에 초기 미국 전인의료협회 American Holistic Medical Association의 대표가 되었다. 아마 이것은 그의 저서 《사랑, 의료와 기적 Love, Medicine and Miracles》이 백만 부 이상 팔려나간 해였을 것이다.

책에서 그는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태도’ 변화가 암을 포함한 각종 질병을 역전시킨 케이스들을 소개했다.

희망이란 무엇일까? 모든 뉴턴 물리학자가 볼 수 있도록 현미경 아래에 놓아보도록 하자. 희망은 ‘생각’이다. 이것은 당신 세포의 생명과 관계된 생각이다. 그 세포들이 그 희망의 생각에 흥미있어 할까? 당신은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세포들은 그 생각을 인식할 수 있다. 만일 침을 고이게 하는 입안의 세포가, 당신이 여성잡지를 보고 있는 것을 인식해서 나타난 것이라면, 암과 대항하고 있는 폐 세포는 확실히 당신의 희망적인 생각의 격려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시겔 박사는 환자들의 긍정적인 생각을 최우선으로 본다. 당신은 고통 받고 있는 불행으로부터 좋은 것을 끌어내야만 한다. 의식의 양극성 안에서 이 변화는 신체의 세포에 닿아 부정적인 쪽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옮김으로써 건강에 변화를 가져온다.

어떻게 생각의 긍정성이 신체의 세포에 의해 인식될 수 있을까?

이것은 텔레파시일까?

초감각적 인식?

영적 능력?

지성의 장(루퍼트 쉘드레이크의 형태 형성장처럼)?

원초적 지각?

그리고 만일 이것이 불완전하게 정의된 것이라면 충분히 설명하자면 무엇일까? 그것은 의심할 것도 없이 에너지인데, 과연 어떤 종류의 에너지일까?

아마도 가능한 “정의”가 수많이 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뉴턴 물리학의 패러다임을 넘어서고, 아인슈타인식 접근에 의해 설명되어야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하고” 허황되며, 신비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 정신적 치유사는 멀리 떨어진 사람의 폐를 ‘본다’. 그러면 그의 폐가 반응을 보인다.

- 살아있는 새우가 끓는 물에 던져졌을 때 실험실 반대편의 식물이 반응을 보인다.

- 세포 기증자가 텔레비전의 폭력 영화를 보면 몇 마일 떨어진 그의 세포가 반응을 보인다.

- 어느 여성이 긴장을 풀고 남편을 생각하면, 남편이 그녀에게 전화를 함으로써 반응을 보인다.

이 네 가지 예는 초감각을 이야기하면 전통적 과학자를 불편하게 한다. 이는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두려워하여 그럴 수도 있다. 이에 아인슈타인과 양자물리학의 적용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두뇌 뉴런의 원격 상호 소통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Palo alto에 위치한 스탠포드 연구소Stanford Reserch Institute, SRI의 두 양자 물리학자는 5년 이상 ‘원격투시Remote Viewing’에 대해 연구해오고 있고, 미 정부는 이의 군사적 적용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참가자는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관찰자와 한 방에 있게 된다. 특정 지역이 무작위로 선정되고 두 번째 실험자가 멀리 떨어진 그 지역을 방문한다. 무작위로 선정된 지역은 참가자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지만, 언어 혹은 스케치로 묘사를 하도록 요구된다.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건, 군사 요원이건 간에 실험 참가자들은 이에 성공할 확률이 높았다. 결과의 적중률은 우연치를 뛰어넘었다. 그들이 알아맞추도록 요구된

건물 지붕을 돛이나 아치 형태라고 정확히 묘사한다. 공원이 스케치되고 분수까지도 정확히 묘사한다. 항구의 위치도 적중한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다. 그들은 이미 심령가로 알려져 있다. 남극 탐험가들과 함께 한 비슷한 실험을 구성했던 뉴욕의 예술가이자 심령가인 잉고 스완Ingo Swann은 후에 NASA의 인공위성 데이터로 확인된 수성(mercury)과 목성(jupiter)의 상태를 묘사하기도 했다.

후자의 경우 심령가는 소통할 원격지의 다른 인간의 두뇌 뉴런도 없었다. SRI의 무작위 실험 선정 지역 중 다수는 이와 같았다. 그러함에도 얻게 되는 이러한 인식의 본질이 무엇이든 간에 이는 뉴런과 뉴런 사이의 소통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스스로’에 기반하고 있었고, 그리하여 ‘원초적 지각’이라고 불릴 수 있다. 이러한 일방향 지각은 백스터 효과에 새로운 차원을 가져다 준다. 백스터가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원격지에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욕구에 대한 두뇌 뉴런의 반응만이 있을 뿐이다.

“컴퓨터가 무작위로 선정한 지역은 어떤 곳일까?” 이 질문이 피험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답도 같은 곳에서 나온다. 마치 묻는 것만으로 인간의 마음이 전 우주와 소통할 수 있는 듯이 말이다.

“잠깐만요.” 어깨 너머 어떤 목소리가 외친다. “너무 억지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주위를 둘러보자. 매년 두뇌 과학에 대해서 발행된 최소 50만 부의 출판물을 읽어보지 못한 이들만 그렇게 말한다. 그들이 용의 집단 무의식, 켈드레이크의 형태장, 라인 박사의 ESP, 피터 러셀의 글로벌 뇌Global Brain 그리고 실바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더라도 이것은 좋은 시작이다.

이는 견고한 물질에서 에너지 세계로의 전환을 일으키는 연금술이

다. 아마도 서로의 작업이 출판될 때까지 그에 대해 알지 못했던 미국인 의사 칼 프리브람Karl Pribram과 영국인 노벨상수상자 데이비드 보hm David Bohm이 동시에 제안한 우주의 홀로그래픽 이론을 공부할 때면 이 전환의 연금술 대부분이 진행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우연의 동시성은 우주의 상호연계성을 재확인하는 우주의 메아리와도 같다. 원초적 직각은 이러한 연계성의 또 하나의 메아리가 아닐까? (다음 호에 계속) ■

- 이 글은 〈The Secret Life of Your Cells〉에서 발췌했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로버트 스톤** Robert B. Stone, Ph.D | 멘사MENSA 회원으로서 그는 뉴욕과학협회에 선출되었고 세계의 선구적인 신지과학자 중 하나이다. 그는 하와이 대학에서 자기치면과 실바메소드, 우뇌활성화 등을 강의했다.

저자 | **최유리** | 지금여기 번역위원